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중독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A Critical Evaluation on Addiction Studies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2011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 약 학 과

중독연구전공

손 기 옥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민

중독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A Critical Evaluation on Addiction Studies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중독연구전공

손기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민

중독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A Critical Evaluation on Addiction Studies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위 논문을 마약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학과

중독연구전공

손기욱

손기옥의 마약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초 목

중독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마약학과
중독연구 전공
손 기 옥

중독(약물 의존)에 관련된 연구를 시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중독연구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연구와 시도만큼 중요한 것이 과거의 일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 된 본 연구는, 국내 약물과 관련한 학위논문에 대해 표본조사 및 유의추출 방식으로 분석하여 시대적 분위기와 비교하여 조망하였다.

한국에서의 중독연구는 1990년대 초·중반, 2000년 전·후, 2010년 현재까지로 나눌 수 있다. 중독 문제에 대한 적응, 정책 및 제도 안착, 새로운 대안 모색의 과정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중독에 대한 배경으로 1960년을 전·후하여 농촌 중심의 비인식약으로써의 사용에서 처벌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뿌리내리는 것 또한 기술한 바 있다.

향후에 대한 전망으로는 민간의 역량이 보다 확대되어 치료 및 재활의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 각 영역의 연구 주제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가 예측된다는 점, 실효적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수준유지 국가자격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중독연구 분야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헌연구로써의 소고이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중독연구의 배경	6
제 1 절 용어의 정의	6
1. 약물	6
2. 마약 및 마약류	6
3. 약물남용 및 약물오용	7
4. 약물의존	7
제 2 절 약물의존의 종류	9
제 3 절 약물중독에 대한 개괄	10
1. 현대적 배경	10
2. 법적 규제	11
3. 치료 및 재활	12
4. 약물예방교육	13
제 3 장 중독연구의 현황 분석	14
제 1 절 중독관련 학위논문의 양적 분석	14

1. 외적 구성에 의한 분류와 분석	14
2. 연도별 분류에 의한 분석	16
3. 분류 및 분석 결과의 종합	19
 제 2 절 외적 구성의 질적 분석	24
1. 마약정책	24
2. 범죄수사	27
3. 치료 및 재활	29
4. 예방교육	31
 제 3 절 중독연구의 시대별 분석	34
1. 1990년 초 · 중반의 중독연구 : 급성장기	34
2. 2000년 전 · 후의 중독연구 : 확립기	35
3. 2010년까지의 중독연구 : 새로운 성장기	36
 제 4 장 중독연구에 대한 종합적 조명	38
 제 1 절 중독연구현황의 종합과 모색	38
1. 중독연구현황으로부터의 소고	38
2. 외적 자료를 통한 중독연구의 접근	39
 제 2 절 중독연구의 흐름에 대한 소고	40
1. 우리나라 중독 문제의 흐름	40
2. 중독연구에 대한 전망	42
 제 3 절 중독연구에 대한 제언	44
1. 중독 전반에 대한 함의	45
2. 중독연구의 실천적 관점에 대한 제언	47

제 5 장 결 론	49
-----------------	----

【참고문헌】	51
--------------	----

ABSTRACT	61
----------------	----



【 표 목 차 】

[표 2-1] 용어 정리	8
[표 2-2] 약의 분류와 의존약물의 범위	9
[표 3-1] 항목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분류	14
[표 3-2] 등록년도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구분	17
[표 3-3]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분류	20
[표 3-4] 마약류 범죄의 연도별 단속추이	22
[표 3-5] 시대별 마약류 및 법규의 변천	24
[표 3-6] 시기별 범죄수사 대표논문 비교	27
[표 3-7] 예방교육의 구분	32
[표 3-8] 연도별 행정사범 단속추이	35
[표 4-1] 중독연구의 학위논문을 통한 시기별 주요 성과 분석	38
[표 4-2]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마약류 관련 배경	39



HANSUNG
UNIVERSITY

【 그림 목 차 】

<그림 3-1>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분류	21
<그림 4-1>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	41
<그림 4-2> 중독연구에 대한 전망	43
<그림 4-3>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과 전망	4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이라는 요소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활의 편리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 편리한 버튼과도 같은 디지털적 문화 구조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 요소를 급속히 해체하는데 점점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가속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의 거시적 측면은 속도감이었으며, 그 속도를 배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간과되거나 생략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본질적 성격은 결핍과 중독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간과되었거나 생략된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편린들의 상실이 정신 병리로 이어진 것이며, 그 결핍된 요소를 현대적 기술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집착의 문제로 이어지며, 나아가 중독으로 대두된 것이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등은 이미 일상용어가 되어버렸다. 그 중에서도 삶을 통제하는 ‘화학적 작용’¹⁾으로써의 약용의 문제를 그 대표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장년에 임박하여 부실해진 몸을 위해 약을 과용한다는 방식의 구성은 흔히 찾을 수 있는 주변의 이야기이다. 일중독을 약물로 해결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중독 과정에서 간과한 내적성장의 문제가 정신 병리를 안고 있음은 공공연한 현상이다. 일상생활 속 킁연이라는 이름의 흡연 또한 중독의 한 모습이며, 알코올 남용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역시 중독과 매우 가까이 있는 위험한 생활방식이다.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계산된 일탈이 도박이라는 늪에 빠지게 하

1) M.D.William Glasser.(김인자 옮김)(1996),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제4개정판)」, 한국심리상담연구소, p209

고, 실전 이전의 충분한 연습이라는 교육적 방법론이 디지털 게임과 접목하여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폐인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 히키코모리의 경우, 이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또는 게임 중독을 통해 폐인화된 생활이 습성화되기도 한다.

이상의 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각고의 노력 또한 작은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제도적 장치만으로 부족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범람하다시피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하여 서울시 내 인가된 각종 단체만도 6~700여개에 이른다. 게다가 각 단체마다 대체로 저마다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 병은 하나인데 분류 방식에 따라 치료법은 만 가지도 넘는다는 대화내용이 단순한 유머로만 들려오지 않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독에 관련된 연구를 시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중독 연구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모색에 앞선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용어라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약물의존’에 대한 표현을 ‘중독’으로²⁾ 대체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새로운 연구와 시도만큼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비록 바라보는 시선이 짧다고 하여도 다음 사람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으며, 연구방식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중독연구 전반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뒤따른다.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

2) 중독은 WHO의 제창에 따라 약물의존으로 대체되었다.

부터, 대상군의 선정과 일정 등등 여러 제한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용어사용에서조차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실제 운용상에서의 혼용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중독’이라는 단어만 하더라도 DSM-IV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학술용어이다.³⁾ 일차적으로 이는 국어 표현보다 외래어가 많다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락현상 등이 발달한 동양문화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물요법이 발달하였고,⁴⁾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발달된 서구의 약물요법과 치료법이 국내로 접목되는 과정에서 이미 의역 및 오역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었다. 동양의학적 요소와 서구적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비전문 인력의 사회참여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혼용 등 여러 요인들이 표현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지는 용어사용상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게다가 전문용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만 활동에 있어서 혼용하는 전문인 또한 다수 있음도 사실이다.

이상의 이유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서 출발함을 하나의 원칙으로 택하여 학위논문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논문은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문장⁵⁾으로 매우 객관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공증된 자료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여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를 그 다음 원칙으로 설정한다.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함이다.⁶⁾ 그리고 중독 전반의 영역 가운데, ‘약물’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범주를 다시 한 번 제한하여 대상군을 선정하였다.⁷⁾ 약물까지의 공통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폭 연구 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연구물의 기간과 관련 새로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이는 조사 범위가 일반 논문자료가 아닌

3) DSM-IV 학술용어는 의존·남용 이다.

DSM-V에서 다시 addiction을 사용하지만, 본 논문의 준비·작성에는 DSM-IV를 기준하여 조사한 바 있으므로 DSM-IV에 기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4) 이동석·김신근(1997), 약의 역사, 서울대학교출판부, p317

5) 김남석(1982), 세계석학논문집, 대우출판사, 서문 中

6) 배용수·이현출·임연선·김종갑·박찬이(2006), 세계의회도서관, 논형, p275

국가도서관의 기능은 ①납본도서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문헌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국가 문헌 보존 기능을 하는 것이며 ②자료 정리 방법의 표준을 정하고 ③국가 서지를 작성하며 ④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⑤국가 표준 시소러스를 작성하여 색인어의 표준 및 정보검색어의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7) AOD(alcohol and other drugs) 표현상의 시사점처럼 알코올의 경우가 기타 약물들을 종합한 정도의 비중이므로 본 문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위논문이었기 때문이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회도서관 소장의 논문의 확인 자료는 최종 92편이었고, 유의추출로 확인한 자료는 84편이었다.⁸⁾ 통계적 절차에 의한 방법론을 세우는 과정이 본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본문에서의 추론과정에 보다 비중을 두는 이유로 학위논문의 수량에 대한 문제는 수치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바닷물의 농도를 구하고자함이 금번의 목적이며, 이는 추후 약물과 관련된 학위논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적 조명을 시작하는 데 단초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표본조사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표본의 내용 가운데 유의추출을 통한 세부적 접근의 검증은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중간검증의 과정이 될 것이므로, 일부 단행본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자료의 일부를 연구 참조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각 사항에 대한 종합으로 추론되는 내용과 통계분석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영역이 본 논문의 중독에 대한 시야의 범위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미 언급한 바처럼 연구 전반의 기초가 되는 중독연구의 현황의 분류는 매우 난해한 일이다. 연구목록에 대한 세부적 가름에 대한 설정 기준부터 합의가 요구되며, 이는 목록작성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후 용어상의 표면적 의미가 아닌 연구에서의 오의를 짚어야 하며, 다시 표준화를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

이상의 제약적 요인으로 중독연구 전반에 대한 현황을 종합하는 통계적 분석에 있어 전수조사방식을 대신하여 표본조사방식을 채택하여 학위논문으로 제한한 바 있다. 학위논문이 가지게 되는 외적 구성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세부적 이해과정에 있어서는 유의추출방식으로 유사논문을 대표하는 일부 논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어 선행 연구 자료 중 객관적 도표와

8) 국회도서관 내의 분류 결과는 112건이었지만, 내용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20건은 제외하였다.

함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추론과의 확인과정을 통해 중독연구 전반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중독연구의 배경

제 1 절 용어의 정의

1. 약물⁹⁾

약물(drug)이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로,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 신체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한다. 의료행위에서 약물의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혹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상의 경우는 의학에서 약물 본래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며, 부정적 측면에서는 자기파괴나 사회 파괴의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이 문제가 있다. 특히, 감정변환물질(향정신성 약물)은 복용량과 기간을 초과 사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마약 및 마약류¹⁰⁾

마약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진통작용이 있으며 투약 중지시 금단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조제 방법에 따라 양귀비에서 추출한 천연마약(아편·모르핀·코데인), 천연마약을 원료로 제조한 반합성마약(헤로인),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페치딘·펜타닐·메사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약류는 양귀비아편 코카엽 등 마약 뿐 아니라 LSD·메스암페타민·신경안정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총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WHO는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이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약물로 정의한 바 있다.(197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

9) 주왕기(1989), 약물남용, 신일상사, p273

10) 국가정보원(2006), 마약류 용어해설, 국가정보원, p25

리법을 통합 법률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하거나 대마를 수수교부 또는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법률이 처벌하고 있던 ‘의료인 등의 마약류 중독자 보고의무 및 처벌규정’은 폐지하였다.¹¹⁾

3. 약물남용 및 약물오용¹²⁾

우리나라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는 약물남용과 약물오용이라는 단어의 사용하였지만, 정의를 내린 바 없었다. 약물남용과 약물오용에 대한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마약법 3조 약물 오남용에서 찾을 수 있다.¹³⁾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무분별한 정의 과정들이 있었으며, 무리 없이 그대로 통일되게 만들어진 정의는 ‘향정신성약물의 비의학적인 사용 (Non-medical use of psychotropic drug)’이다.

약물남용은 감정(mood), 인식(perception), 행동(behavior)에 인위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향정신성 약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비의학적, 불법적(illegally)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용과 남용의 근본적인 차이는 의학적 목적의 유, 무이다. 남용은 의학적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이며, 오용의 경우는 과용(over-use)과 저용(under-use)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과다사용에 해당한다.

4. 약물의존¹⁴⁾

특정한 화학물질 및 약물 등의 섭취에 강박적이고 무한한 욕구를 나타내는 상태가 약물의존이다. 애연가의 껍연과도 같은 약물을 갈구하는 행동을 약물탐색행동(drug seeking behavior)이라 하는데, 약물의존은 약물탐

11) 국가정보원, 전게서, p26

12) 박계숙(1997), 인간과 건강, 길눈, p353

13) 윤홍희(2008),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p8

14)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p175, 176

색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약물의 반복 복용으로 이탈이 곤란하고, 약물 갈망이 격심해져서 강박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약물을 자기투여(self administration)하는 상태가 약물의존(drug dependence)이라고 한다.

약물 남용과 의존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존성(dependence potential)이 높은 약물은 남용되기 쉽다. 의존형성과정은 약물의 종류, 용량, 투여경로 및 간격 등에 따라 결정되며, 남용자의 유전적 소인과 개성, 성장 과정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표 2-1] 용어 정리

용 어	정 의
사 용	어떤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AOD(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을 섭취하는 것
오 용	개인이 AOD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것
남 용	오용 후에도 AOD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중 독	WHO의 제창에 따라 약물의존으로 대체하여 사용
의 존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강박적인 AOD의 사용

자료 : Gary L. Fisher·Thomas C. Harrison(2006), 물질남용의 이론과 실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p.81

[표 2-1] 용어 정리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사용의 단계에서 그 횟수의 증가에 따라 오용이 불가분 발생하였으며, 오용의 부정적 결과가 남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으며, 치료·재활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존이라는 표현으로 정립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용 단어의 빈도에 따라 사회의 약물에 대한 대응 단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의존 약물의 종류

본문에서는 중독의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약물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지만, 약물 전반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표 2-2] 약의 분류와 의존약물의 범위를 첨부하였다.

[표 2-2] 약의 분류와 의존약물의 범위

구 분	간 추 립	의약적 결정	법 규제
약 초	약효가 있는 식물성 물질	사용자	없 음
일반매약	처방 없이 합법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화 된 약	사용자	없 음
처 방 약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팔거나 조제할 수 있는 상품화 된 약	의 사	없 음
비인식약	향정신성 약효를 가지나, 보통은 약으로 생각되지 않는 상품 : 커피, 홍차, 콜라 음료, 코코아	사용자	없 음
담 배	사용양식, 건강상의 측면에서의 특수성으로 별도 분류	사용자 (의존 약물)	없 음
알코올	남용성에 의해 별도 분류	사용자 (의존 약물)	없 음
불 법 약	판매, 구매 및 사용이 법에 의해 금지된 약 :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등	사용자 (의존 약물)	관련 법규

자료 : 데이비드 던컨 · 로버트 골드(1991), 약과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0

제 3 절 약물중독에 대한 개괄

1. 현대적 배경

현재의 마약류 관련 배경의 근간은 미국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재편이 이루어진 사실은 미국적 제도를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19세기 약학의 확립이라는 사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약물 및 마약류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용어 탄생의 배경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약술하면,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서구의 민족주의 국가에서 국지적이며 지역색이 강한 약전의 처방 등이 국가적 단위로 재편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업 및 약학의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며,¹⁵⁾ 이러한 과정과 세계대전이라는 상황을 통해 20세기형 모델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약물류의 남용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가가 미국이었다.

20세기 미국의 마약정책은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과 정책의 이중성이다. 후자의 경우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입장 때문에 가지는 한계성이며, 전자의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로서의 입장 때문이다. 우리에게 WHO의 공식 용어인 의존보다 중독이라는 표현이 익숙한 이유는 해방 직후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마약에 대한 정책 또한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1914년 이후 50년대까지 통제와 처벌 강화의 역사는 『해리슨 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 70년대의 경우 치료 및 재활 정책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70년대 초 닉슨 행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의 선언을 통해 정치문제화 되었으며,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에 이르러 50년대로, 즉 처벌 위주의 역사로 회귀하였다. 이는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말미암아 민간문제에는 군

15) 이동석·김신근, 전계서, p187

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전통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부시행정부의 ‘마약전의 군사화’ 정책에 이르고 있다. ‘마약전의 군사화 정책’의 경우, 막대한 연방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자연스레 ‘마약의 합법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오리건 주에서 처음 시작된 마리화나에 대한 비범죄화 정책은, 현재 7개 주에서 실행되고 있다.¹⁶⁾ 마약류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의 실례는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2. 법적 규제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는 그 지역의 마약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바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남용 약물이 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의 시초는 구한말로 여겨지며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2) 후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의 “견문별단”에서 아편흡연과 해독에 대해 논한 기록이 있다.(마약밀수실태와 그 조사제도 및 조사기법, 임대환, 2001) 이를 통해 추정되는 것은 최소한 이 시기부터 아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그 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우려를 현실화해 온 과정이라는 점이다. 1950, 1960년대에는 아편, 1970년대에는 대마초의 흡연으로 사회가 크게 동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폭발적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필로폰 압수량의 증가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¹⁷⁾

마약 중독에 대한 범죄로의 인식에는 앞서 언급한 현대적 배경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19세기 민족국가들의 국가적 약전관리와는 달리 국가의 해체라는 상황에서 지역의 약학에 대한 지식이 민간요법으로 남게 된 상황에서 아편 등의 요소는 일반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해

16) 조성권(2009), 마약정책비교연구(강의록), 한성대학교

17) 윤홍희, 전개논문, p1

방 이후부터 도입된 미국식 제도의 안착은 당시 미국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의존의 문제 또한 중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치료 및 재활

국내의 인식은 아직 중독에 대한 입장이 의존이라는 용어에 우선하는 만큼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사회적 함의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한다.’는 것과 ‘중독은 근본적으로 완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중독자의 경우 사회로의 회귀는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고자 경주해야 할 영역이 치료 및 재활이다. 관계 속의 사람이지만, 본디 사람이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중독 즉, 약물의존의 진행과정은 ‘약물 사용에 대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접하게 되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좋은 경험’을 하고, ‘다시 한 번 좋은 경험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찾게 되고(의존성)’, ‘약물을 통해 얻어지는 좋은 경험을 느끼기 위해 집착하여(내성)’, ‘다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좋은 느낌을 유지한다(금단증상)’는 것이다.¹⁸⁾ 이는 약물 남용 및 마약류 중독의 과정을 정리한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약물의존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이론 모델은 도덕 모델(moral model), 학습 모델(learning model), 질병 모델(disease model), 자가치료 모델(self-medication model),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모델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모델의 차이점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 약물의존자에게 맞는 개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사정을 하여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약물의존자와 치료자는 건전한 협력체계에 기반을 두어 그들이 수행하는 치료 모델에 대한 신념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¹⁹⁾

18) 주일경(2009), 약물재활복지이론과 실제, 정법, p294

19) 상계서, p298

이상의 내용에서 치료 및 재활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으며, 그 상황에 대한 실천적 함의에 따른 행동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디지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점진적 전진이 치료 및 재활의 공통분모이며, 중독자를 의존자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며, 이것은 치료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에서 알코올중독과 약물남용 치료는 커다란 사업이 되어 있으며, 1990년에는 대략적으로 7,000개의 물질남용 치료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미네소타 회복모델과 AA의 12단계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²⁰⁾

4. 약물예방교육

약물예방교육은 약물남용실태의 변화 및 사회 배경의 변화에 따라 개선되어 왔다. 무지가 최악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정보모델, 눈높이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감정적 모델,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접근을 모색한 사회영향모델로 변화해 왔다.²¹⁾ 정보모델은 다시 범 집행 모델과 의료적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패한 모델이 되었고, 감정적 모델은 직역한 표현으로 교육적 모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영향모델은 심리사회적 모델과 사회문화적 모델로 분류 가능하다.²²⁾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시하는 영역은 사회영향모델이며, 이에 교육적 모델을 가미한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 중에 있다.

20) David J. Powel-lArchie Brodsky(한국중독전문가협회 역)(2009), 중독영역에서의 슈퍼비전, 학지사, p181

21) 강은영(2008),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강의록), 한성대학교

22) 데이비드 던컨·로버트 골드(1991), 약과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72

제 3 장 중독연구의 현황 분석

제 1 절 중독관련 학위논문의 양적 분석

1. 외적 구성에 의한 분류와 분석

국회도서관 소장의 중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색으로 2,777건의 학위논문이 확인되었다.(2010년 12월) 이에 통계적 절차를 따라 ‘약물 및 마약’에 대한 범주로 제한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약물 및 마약’과 관련된 국회도서관의 중독과 관련 있는 학위논문 조사 대상은 112편이었다.²³⁾ 이 확인된 112편의 경우 ‘약물’ 및 ‘마약’에 대한 논조가 주요 내용인가 아니면 부수적인가에 따라 최종 92편의 약물 및 마약에 대한 논문을 표본으로 하여 중독연구의 흐름을 조망해 보았다.

[표 3-1] 항목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분류

구 분	마약정책	범죄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교육	계
박 사	3	3	2	.	8
석 사	31	13	13	27	84
계	34	16	15	27	92

자료 : 국회도서관 소장 약물 및 마약 관련 학위논문 목록 분류(2010)

외적 구성으로 유의추출 한 92편의 논문은 [표 3-1] 항목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분류와 같이 마약정책, 범죄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교육의 형태로 4분하였는데, ‘2장 3절’의 구성과 참고하여 비교하기 위

23) 국내 학술지의 경우 100여 편이 확인되었으나, ‘등재학술지’라는 기준에 의거할 경우 5편에 불과하여 양적 비교연구에 있어 의미가 미미하다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만을 조사대상군으로 취하게 되었다.

함이다. 약물남용에 따른 사회문제의 사회적 조치로서의 마약정책,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범죄수사에 대한 항목, 치료 및 재활, 약물예방 교육 등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치료 및 재활과 예방교육이다.

논문 편수로 보아 범죄수사, 치료 및 재활의 분야보다 마약정책 및 예방 교육에 치중된 성향이 파악된다. 마약정책과 예방교육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석사 학위논문에 비해 박사학위논문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범죄수사의 영역만이 일정 성과가 있음에 비추어 매우 대조를 이루는 항목이다.. 학위논문 작성을 학 문과 관련된 인프라 인원의 확대로 해석할 경우 [표3-1]의 경우를 통해 다 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마약정책의 경우 입문자에 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영역의 전문인 부족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역사, 배경, 지식 등에 있어서의 절대 수량의 부족과 이어진다. 범죄 수사 등의 논지들과 연동하여 추론할 경우,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 된 사안의 정리 및 부가적인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해 왔다는 상황적 가설 을 세울 수 있다.

범죄수사의 경우 학위 수치의 비율이 경영조직의 일반적인 비율과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수사 영역의 주요 연구대상자들에 대해 고려할 경우, 상황은 매우 간단히 정리된다. 즉, 관련 실무 전문가의 학위취득 노 력을 일면 대변했다는 점과 학위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관련 전문가 가 되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치료 및 재활의 경우 오늘날 중독연구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꾸준한 육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영역과 그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미부여한 수치해석의 결과는 학계와 관의 역 할에 이어 민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치료 및 재활 영역의 연구 전반 에 대한 양적 팽창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중독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조건이다.

사건의 발생과 이에 대한 방안, 그리고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독 의 문제들은 범죄수사, 마약정책, 치료 및 재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반증함과 더불어 그 일상적 패턴에 대한 대안 과제라는 점에서 예방교육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방교육의 경우, 이미 양적으로 일정 자리매김했음에 비해 질적인 수준은 미흡하다는, 외형적으로는 마약정책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양적 증가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과제로서의 예방교육이라는 단계를 넘어 하나의 가치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일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보모델과 교육적 모델의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도 아울러 추정할 수 있다. 발달단계의 흐름과 매우 흡사한 예방교육의 개선과정에서 각기 상황 모델의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 연구의 증가, 즉 박사학위논문이 수치적으로 증가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연도별 분류에 의한 분석

중독의 역사에 비추어 본 연구 흐름은 의약계열의 연구에 대해 사회학적 접근이 독립화한 과정으로도 보인다. 본 연구의 범위 안에서의 첫 논문은 1984년 정재웅의 “약물범죄의 비교연구 : 보안처분에 의한 교정·치료를 중심으로”이다. 이어 1990년 강두원의 “고교생들의 체육활동과 약물 남용 실태 분석”이 있고, 이하 연도별 기록은 [표 3-2] 등록년도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구분과 같다. 이것은 중독연구가 범죄수사, 마약정책, 치료 및 재활과 대안과제인 예방교육의 병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일면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다.

도표의 수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수치가 나온 2년 내지 3년 전·후의 사회적 배경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논문 자체의 질적 수준과는 별도의 양적 해석을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학위논문을 채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한 편의 학위논문은 한 사람의 인원으로 대치되는 관점과 학위과정으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과 소정의 교육 이수 이후의 사회적 활동을 예상하여 관련된 흐름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이후를 고려함 이전에 1980년대의 학위논문이 10년간 2편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늘어나는 연구 성과는 199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한 이후 2000년을 전·후하여 더욱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사학위논문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표 3-2] 등록년도에 따른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구분

등록년도	박 사	석 사	계	등록년도	박 사	석 사	계
1991		3	3	2001		2	2
1992	1	3	4	2002		8	8
1993	1	2	3	2003		6	6
1994	1	3	4	2004	1	10	11
1995		1	1	2005		8	8
1996		1	1	2006		7	7
1997		2	2	2007	1	5	6
1998	1	2	3	2008		4	4
1999	1	6	7	2009		4	4
2000		5	5	2010	1		1
소 계	5	28	33	소 계	3	54	57

※ 1984년 석사논문 1편, 1990년 석사논문 1편

자료 : 국회도서관 소장 약물 및 마약 관련 학위논문 목록 분류(2010)

이상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까지는 중독 문제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음을 의미하는데, 의료적 또는 법적 관점과는 독립적인 문제이다. 1990년대가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중독의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0년대 중반 재확산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기 해석에 보다 구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기적 사회 이슈에 대한 학인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는 1988년 올림픽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국제화’라는 국가 정책적 과제가 있었으며, 1991년에는 해외여행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 통제적 사회에서 개방형 사회로 전환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안이다. 이어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선언한 바 있으며, 1997년 IMF사태가 있고, 이를 2000년에 이르러 나름 해소시킨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이 있었으며, 이후 크고 작은 각종 국제행사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었다. IMF사태 이후 경제적 양극화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1980년대까지의 통제적 국가 시스템에 의해 마약류를 위시한 약물에 대한 관점은 법과 의료적 관점이 주류였으나 1988년 올림픽 등을 기점으로 개방적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적인 흐름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은 필연이었으며, 대표적 문제이자 본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약물남용에 의한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후 더욱 가파른 개방과 연동의 상황이 반영되어 그 결과 2010년까지 이른 것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이 1992년이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에 의해 법정단체화한 시점이 2002년이었고, 2000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련 법제가 통합되었으며, 2000년 한성대 국제대학원에 증과 된 국제마약범죄학과가 국제마약학과로 개명한 시점은 2002년이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90편의 학위논문 가운데 9편이 2000년 증과 된 한성대학교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중독 문제에 대한 중독연구의 진행이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조성에 일부 편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4년의 10편의 석사학위논문 가운데 7편이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이라

는 점 또한 2002년의 사회 참여적 분위기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도표 상에는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90편의 학위논문 중 가장 많은 학위자를 배출한 대학은 광운대, 동국대, 한성대, 중앙대이며, 각각 12편, 9편, 9편, 7편의 학위논문이 작성되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양적 증가한 연구는 재차 사회기반을 통해 정례화 되어 가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나의 우려는 양적 증가가 2010년에 이르러서는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인데, 각 연구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거시적으로 사회적 포화상태 또는 전환의 분위기라는 두 흐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제반 상황으로 미루어 연구의 본질에 대한 전환에 보다 무게감이 실린다고 할 것이다.

3. 분류 및 분석 결과의 종합

앞서 외적 구성에 의한 분류와 분석 그리고 연도별 분류에 의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각각에 대한 흐름을 이어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양적 분석을 단락 짓고자 한다.

분류된 통계자료의 종합은 [표 3-3]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 분류이다. 앞서 추측된 내용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선행 주론에서 누락된 요소로써 2001년의 기록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논문의 양적 감소가 두드러져 보이며, 이는 이미 언급한 바 처럼 1990년대 말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에 의해 급속히 팽창한 중독연구에 대한 성과가 그 이후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다. 박사학위논문의 증가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3기로 가름할 수 있는 중독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은,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했지만 국제화라는 지향을 내포했던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노출이 되었던 상황 이후, 이에 대한 영향으로써 중독연구의 성과가 있었던 1990년대 초·중반의 1기, 이러한 연구 성과가 정립된 시점인 2000년을 전·후한 2기, 이러한 인프라의 성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3기, 2010년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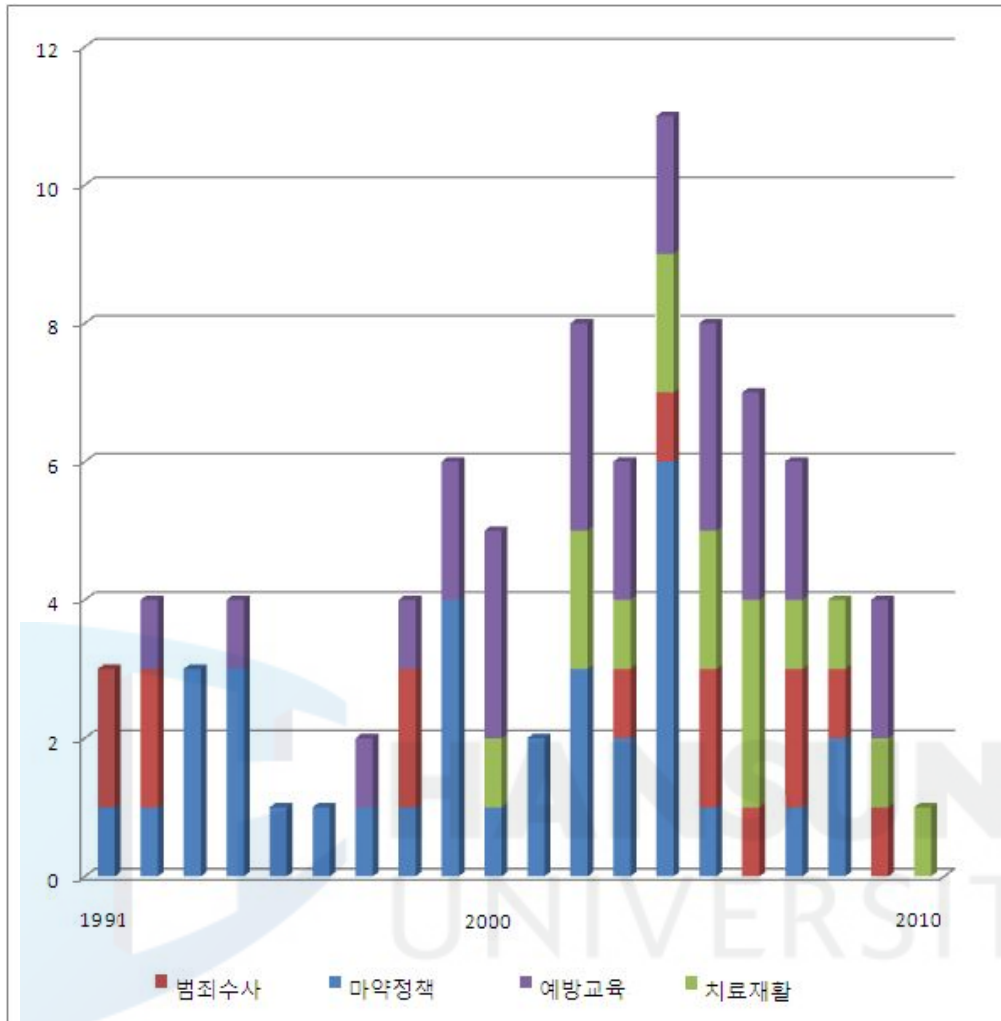
[표 3-3]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분류

구분 년도	집 계				누 계			
	마약 정책	범죄 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 교육	마약 정책	범죄 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 교육
1991	1	2			1	3		1
1992	1	2		1	2	5		2
1993	3				5	5		2
1994	3			1	8	5		3
1995	1				9	5		3
1996	1				10	5		3
1997	1			1	11	5		4
1998	1	2		1	12	7		5
1999	4			2	16	7		7
2000	1		1	3	17	7	1	10
2001	2				19	7	1	10
2002	3		2	3	22	7	3	13
2003	2	1	1	2	24	8	4	15
2004	6	1	2	2	30	9	6	17
2005	1	2	2	3	31	11	8	20
2006		1	3	3	31	12	11	23
2007	1	2	1	2	32	14	12	25
2008	2	1	1		34	15	13	25
2009		1	1	2	34	16	14	27
2010			1		34	16	15	27
계	34	15	15	26	34	16	15	27

※ 1984년 수사 관련 석사논문 1편, 1990년 예방교육 관련 석사논문 1편

자료 : 국회도서관 소장 약물 및 마약 관련 학위논문 목록 분류(2010)

<그림 3-1>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분류



※ [표 3-3] 약물 및 마약관련 학위논문의 종합분류에 따른 구분

<그림 3-1>은 [표 3-3]의 시각화이다. <그림 3-1>은 상기 추론되었던 대부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설명 자료가 되는 중독연구의 양적 분석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결과자료이다. 이를 통해 앞서의 추정사항을 보다 명확히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마약정책의 경우 1990년대 초반과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박사학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시대적인 특성을 짚는다면 88올림픽, 여행자유화(1991)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 IMF사태, 일본문화개방, 2002년 월드컵을 위시한 국제행사 등이 있다. 국제화 및 급속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통제력의 강제성이 다소 약화된 시점에서 마약문제와 관련 오랜 기간 국제청정지역이었던 우리나라가 준비 없이 노출된 상황적 배경이 있다. 이 시기의 마약류 사범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4] 마약류 범죄의 연도별 단속추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마약정책 연구의 흐름은 국제화 상황에 의한 마약 노출에 대한 대응시기와 세계화를 맞이하여 다각화된 약물류 범죄에 대한 대책 준비의 시기 그리고 대응책이후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마약류 범죄의 연도별 단속추이

(%) 단위: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2,968 (100)	6,773 (100)	4,555 (100)	5,418 (100)	6,189 (100)	6,947 (100)	8,350 (100)	10,589 (100)	10,304 (100)	10,102 (100)
대마	1,054 (35.5)	1,509 (22.3)	1,499 (32.9)	1,516 (28.0)	1,272 (20.6)	1,301 (18.7)	1,606 (19.2)	2,187 (20.7)	2,284 (22.2)	1,482 (14.7)
마약	949 (32.0)	3,364 (49.7)	1,314 (28.8)	1,135 (20.9)	1,235 (19.9)	1,201 (17.3)	892 (10.7)	923 (8.7)	954 (9.3)	661 (6.5)
향정	965 (32.5)	1,900 (28.1)	1,742 (38.2)	2,767 (51.1)	3,682 (59.5)	4,445 (64.0)	5,852 (70.1)	7,479 (70.6)	7,066 (68.5)	7,959 (78.8)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992-2001.

자료 : 이민식 · 강은영(2005), 마약류사범의 처리 및 양형 실태(마약연구 제2권), 한국국제마약학회, p3

이어 범죄수사의 영역을 살펴보면, 연속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속성’으로 표현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죄율의 증가에 따른 전문인의 주기적인 수급이 이루어짐을 뜻하기도 하며, 마약정책과는 차별적 성격

의 실무 중심의 연구가 있음을 의미하고, 시기적 상황에 기타 영역보다 자유로운 상황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물론, 상황적 조건에 맞추어 소양교육 이상의 과정은 분명 있었겠지만, 학위논문의 작성 유무로 판별한다는 관점에서 범죄수사의 영역에서 추론되는 핵심은 행정조직의 점진적인 전문화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치료 및 재활의 영역에 앞서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면, 비중 자체도 적지 않으며, 꾸준한 양적 증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요소에서는 정체되어 있음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약물예방교육의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예방교육을 가름하는 모델 가운데 실패한 모델의 경우가 정보모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나 정황적 근거 모두가 1990년대의 우리의 약물예방교육은 정보모델을 거쳐 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2000년 전·후의 약물예방교육 또한 교육적 모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약물예방교육의 양적 수준유지는 약물예방교육의 과도기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범죄수사의 대안과제로서의 예방교육의 이미지 또한 강한 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 전·후의 약물예방교육이며, 질적 향상을 지향하지만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방교육의 현재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치료 및 재활의 영역에서는 공공분야의 자리매김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특성적 요소가 확인된다. 약물예방교육의 정보모델 및 교육적 모델의 경우는 민간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에 있어 관의 역할을 대신한 측면이 강하지만, 이에 반하여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공동체로 이어지는 치료 및 재활의 영역은 명백히 사회학적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마약정책과 범죄수사의 영역이 어느 정도 안착한 이후 민간 분야의 연구가 진척을 보이며 드러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의약적 영역이 아닌 사회학적 치료재활에 대한 학위논문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적 독립 성향도 보이지만, 연대적 자립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외적 구성의 질적 분석

1. 마약정책

유의추출한 중독연구의 논문 중 기타 학위논문에 비해 법제와 행정, 방안 등의 내용을 포괄적 범주에서 마약정책 관련논문으로 설정하여 분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각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3-5] 시대별 마약류 및 범규의 변천

시대	남용약물	관련법
조선말	아편 · 모르핀	
일제시대	아편 · 모르핀 · 헤로인	-조선아편취체령(1919) -아편단속법(1930)
해방이후	아편 · 헤로인	-마약단속규정(1946) -마약취체령(1946)
1950년대	아편	-형법(1953) -마약법(1957)
1960년대	아편 · 메사돈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입시법(1961)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특가법(1966)
1970년대	대마초 · 필로폰 · LSD	-마약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1980년대	대마초 · 필로폰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 -대마관리법(19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
1990년대	필로폰 · MDMA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2000~현재	필로폰 · MDMA · 야바	마약류관리법(2000)

자료 : 경찰청 마약수사과(2008), 2007년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경찰청, p.9

제1절의 추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먼저 시대별 마약에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표 3-5]는 시대별 마약류 및 법규의 변천이다. 법제의 흐름은 1990년대까지는 각 항목에 대한 법규를 적용하게끔 되어있었으나 2000년 7월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규제하고 있다.²⁴⁾ 이러한 법제의 흐름은 학위논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1990년대의 정책관련 논문의 주류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실태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이며, 1990년대 16편의 학위논문 가운데 12편이 유사한 주제로 작성되었다. 2000년 이후 2010년까지의 연구는 외형상은 비슷한 논제의 양상이지만, 내부적으로 다각화 하는 일면이 있다.

시기별 대표논문을 약술하여 상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다소 총론적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1993년 신의기의 ‘국제법상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논하고 있다. 이어서 1999년 최병원의 ‘마약범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는 2000년 통합규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한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법제의 정비 이전의 논제와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종합적 연구가 있었음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정책의 방향과 거의 유사한 기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후 2007년 서덕화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에서는 마약에 대한 두 가지 대응 중 남용자의 치료·재활에 비중을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치료 및 재활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온 일면과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가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마약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의 과정이 있었던 시점이 1990년대 초반이었고, 그 결과물로서의 통합방안이 만들어진 시점은 2000년이 되며,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제도적 변화에서 기타 영역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표논문 만이 아닌 각 논문들의 내용상의 시사점들이 집중하는 시기를 거꾸로 짚어본 결과로서, 사회적 이슈를 양적 분류의 과정에서 추론했던 내용과 일맥상

24) 윤홍희, 전계논문, p8

통하는 것이다.

다음은 2008년 조석연의 ‘해방 후 국민형성 과정에서의 마약문제’의 내용의 요약이다.

사람들의 양귀비 재배에 관한 인식은 비교적 전통적인 사회에서 관대하여 농촌지역의 가정 의학으로 재배한 바 있었고, 아편의 접촉이 용이한 상황에서 의 부족한 의약품의 대용품이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와 1950년 6.25를 지나며 특별한 제제와 변화 없이 활용하였으나 1961년 이후 국가통제의 강화에 맞춰 도입된 입법에 의거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에서 중요한 사실은 마약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번역물이 아닌 국내 자체 논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식민지역이 경제적 자립, 정치적 독립, 역사의 재발견으로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마약학의 학문체계에 있어서도 번역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넘어 어느새 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매뉴얼이 준비되고 있음의 보여주는 일면이다. 부가적으로 1960년대 입법된 마약관련 법제의 시기와 당시 미국의 마약 관련 법안에 대한 분위기의 유입으로 중독의 문제를 사회범죄로 규정하는 함의가 만들어진 시기 등에 대한 것도 설명 가능하다. 약물과 관련 비서구지역인 우리나라의 민간요법이 의약품준에서 멀어지며 불법적 의약 활동이 되는 실질적 시작점이 이 시기라는 것도 또한 추론된다.

1990년대 초반의 연구 성과물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마약류에 대한 실태와 대안으로써 ‘현상 이후의 정리’에 가까운 대책이었으나, 방법론적 대안의 제시를 통해 사회 흐름을 일부 선도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 완성’에 기여하는 양상으로 진전된 모습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2000년을 전·후하여 완비되었으며, 제도의 안착 이후부터는 보다 제도 및 대응에 대한 반복이 아닌 보다 다각적인 학술적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범죄수사

전반적으로는 수사체계에 대한 구성이다. 분류의 기준은 수사 및 일부 법제에 대한 구성이다. 후자의 경우 마약정책과의 구분이 모호한 일면도 있지만, 제도 정비의 영역은 마약정책으로 일괄 편성한 만큼, 본문에서는 법제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범죄수사의 영역으로 가름하기로 하였다.

범죄수사의 실무에 있어서는 경찰청 형사과 마약계 신설(1991. 8. 1)²⁵⁾ 이후 본격적인 마약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마약수사의 흐름에 대해 학위논문을 통한 해석으로써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의 내용은 범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점차 실태분석 및 규제 등으로 주제 전환 이후, 최근에는 수사력에 대한 방안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시기별 범죄수사 대표논문 비교

이은모(1992)	심 순(1998)	구자관(2009)
약물범죄에 관한 연구 : 실태분석과 대책을 중심으로	마약류범죄의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연세대 대학원 법학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선문대 행정대학원(석사)
약물범죄가 발생하는 전반에 대한 논조 및 법제에 대한 내용으로 범을 중심으로 약물범죄에 대해 기술하였음. 향후 약물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약물 수요 경향 증가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과 제어 약물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에 충실한 대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논지 포함.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범죄문제에 대해 한국도 예외가 아님과 청소년 약물 남용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급과요로 대변되는 마약범죄의 수사 강화를 강조함.

* 조사대상군 중 2000년 이후 박사논문이 없으므로 석사논문으로 대체

25) 경찰청 마약수사과(2008), 2007년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경찰청, p8

[표 3-6] 시기별 범죄수사 대표논문 비교가 보여주는 바는 마약정책의 방향성과 유사한 양상이지만,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대표논문의 전공자가 법학에서 시작하여 경찰행정학으로 바뀌었고, 이어 인준대학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 또한 시사점이 있다. 조사대상군 내의 상황이지만 박사논문은 1990년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전에도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양적으로 작다고 하여도 연구 성과는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이론가에 의한 기준이 설정되었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실무의 입장이 반영되어 성과물로 나타나고, 이것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임을 상기 대표논문의 발표자에 대한 접근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다.

논지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현 실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로서 시기적 사회 분위기가 집목되어 있다. 최초에는 정보 자체에 대한 종합 및 분류 형식이 보다 강한 성향이였으며, 실무의 영역과 접합하여 대안과 제로 약물예방교육 등에 대해 논하였고, 이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수사에 대한 관점 등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전반적 기초에는 경찰행정에서 느껴지는 폐쇄적 전문성이 느껴지며, 이는 논지 자체의 경직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분위기와 흡사한 일면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질적인 분위기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의 무던한 변화는, 주어진 마약류 범죄 상황을 ‘뒤 쫓는’ 입장에서 ‘지금·여기’의 상황분석으로의 입장으로의 선회 이후 ‘세계로’의 시야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내용들을 요약하면, 정책적 법제의 기준에 따라 예하 기관의 실무에서 각각의 개선방안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범죄수사영역의 학위논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적 비율까지 감안할 경우 수사 전담조직인 경찰청 내부의 마약류에 대한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3. 치료 및 재활

상기한 정책 및 수사 관련 논문들의 경우 대체로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는 구성이며, 외부에서의 실용을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반하여 치료 및 재활의 경우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직접적인 실천적 활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치료 및 재활관련 논문 목록이다.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마약사용극복에 미치는 효과(2000)
보호관찰처분의 유형에 따른 약물재남용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수원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2002)
마약중독과 치료 및 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200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2003)
남성 히로뽕 사용자의 과대성락과 그 인식에 관한 연구
: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찾기를 중심으로(2004)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2004)
치료공동체를 통한 약물남용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200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2005)
약물남용관련법의 내용과 치료재활제도에 관한 연구(2006)
약물경험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적처우 개선방안(2006)
마약범죄자의 사회복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06)
마약류 투약 범죄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극기체험(챌린지 로프코스) 활용방안(2007)
집단 심리상담치료에 의한 마약사범의 실태분석 및 수형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2008)
약물의존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직업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인천 및 부산지역 자조모임 중심으로(2009)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방법론의 활용(2010)

치료 및 재활의 경우 논문의 수량에 비해 내용의 체계성이 뚜렷하며 지향성 또한 분명하다. 본 연구 내에서 중독연구 전반의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유사한 학위논문 자료가 없으며, 각기 다른 논문 제목의 시간에 의한 나열만으로도 치료 및 재활에 대한 흐름의 일면은 정리된다.

치료 및 재활의 경우 최종적으로 치료공동체로 가는 과정에서의 통과점에 해당한다.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논문 성과는 크게는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유사한 논제가 없다는 것은 양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연구과제의 양적 팽창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기타 영역의 학위논문에 대한 질적 검증의 과정에서 비슷한 논지들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연구자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선 초기 결과물로도 인식되는 만큼 초기 인과관계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연구주제와 학위논문이 출현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치료 및 재활의 영역에서는 유사한 학위논문이 없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연구 성과의 양적 부족을 반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복되는 논지를 보이지 않으며 하나의 영역으로 가름되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적 위치를 점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현재는 외부의 검증된 제도의 단계적 유입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인 치료프로그램과 재활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꾸준하며 단계적인 논문의 질적 수위로 이어지고 있음은 완성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연구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국내 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조명을 시작으로 적절한 DB구축 후 확인 작업 이후 관련제도에 대한 논조와 더불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며 치료·재활로 마무리 되는 연구 성과는 지난 10년간의 치료 및 재활영역의 흐름과도 같다.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최종적으로 치료공동체로 귀착하게 되는데, 의료 사회적 치료공동체에서 출발한 치료공동체의 치료접근 방법

은 약물중독, 사람, 회복, 올바른 생활 등 4가지 서로 연관된 시각으로 구성된 명확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중독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영혼이 상했다는 징표로 간주하여 치료세팅이 아닌 자조집단(self-help group)으로 12단계의 지침으로 단주를 추구하는, 비거주형 세팅의 정기모임에서 거주형 공동체로의 변천이 치료공동체의 역사이며, ‘가족’ 또는 ‘공동체’라 불리는 치료공동체는 ‘Home Base’로서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왔다.²⁶⁾

여기서는 2005년 허성수의 ‘치료공동체를 통한 약물남용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의 요약문으로 치료공동체에 대한 논조를 일단락 하도록 한다.

‘21세기 한국의 가장 큰 범죄는 마약이 될 것이며, 제조, 밀매, 중독자, 판매자 폭력조직이 주요 그룹이 될 것이다. 이들을 처벌하면 반복적 범죄만 양산할 뿐이므로 치료커뮤니티(TC)를 효과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범죄자들의 의료 및 치료 전반에 TC가 활용되며, 정부 시책으로 안착할 때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²⁷⁾

4. 예방교육

예방교육 관련 학위논문은 그 양적인 상황에 비해 질적으로는 획일화의 경향을 보인다. ‘실태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의 구성이 표본조사대상 28편 중 무려 21편이다. 게다가 이러한 논문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양적으로만 팽창해 있음과 나아가 예방교육 자체적으로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점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면, 먼저 연구 과정상의 무분별함이 원인일 것이다. 논문 및 연구 방법 등이 개별적 요소일 경우는 양호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의 경우 3년 정도가

26) 김선민(2004), 마약연구 中 약물사용자의 지역사회개입 전략, 국제마약학회, p31

27) 허성수(2004), 치료공동체를 통한 약물남용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p80

경과하면 조사대상군의 청소년은 이미 다음 학교로 진학해 있는 경우이며, 설문지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항목에 대한 표준화보다는 그 시기적 이슈에 맞춘 설문항목이 강조되는 현실의 문제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학위논문상의 예방교육의 한계점은 ‘수단의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의 구성과 2010년까지의 구성에 있어 실태 및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부모, 학교, 기타 요인에 의한 약물에 대한 노출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하며, 보다 나은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테면, 새로운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도 등에 대한 내용은 단 1편도 없으며, 현재의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한계성 지적이 예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방식이다.

이러한 점들은 예방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경우는 타 영역과 비교하여 실용성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연구 성과 및 해석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예방교육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7] 예방교육의 구분

구 분		가 정	문 제 점	결 과
정 보 모 델	법 집행 모델 (law enforcement model)	귀인 : 도덕적 문제 처벌위주 강제성 필요	법의 강제성에 대한 반발	암 시장 활성화
	의료적 모델 (medical model)	전염병과 유사 인식 강제치료(유사 감옥)	낙인 효과	법 집행 모델로 귀속
감정적 모 델	교육적 모델	귀인 : 부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 : 교육필요	약의 실험적 사용 증대	성과 없음
사회적 역 할 모 델	심리사회적 모델 (psychosocial model)	귀인 : 청년기 좌절	낙인 효과 서비스 제공 한계	(검증 과정)
	사회문화적 모델 (sociocultural model)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인식 전환	(검증 과정)	

자료 : 데이비드 던컨·로버트 골드, 전계서, p272

[표 3-7] 예방교육의 구분과 같이 예방교육의 경우는 크게는 3단계, 이를 다시 세분하면 5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보모델의 경우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거의 통과위례와 같은 예방교육상의 통과프로그램이 된다. 그 이유는 세분된 항목의 ‘범 집행 모델’이라는 용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바, 범법자의 경우 계도를 위한 첫 단계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교소도 안의 제소자 대상의 약물예방교육이 실시 될 때는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가 동반 설명이 되며, 약물예방교육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하 교육적 모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역할모델로 이행하는 것이 수순이 되겠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약물예방교육에 있어서의 ‘비용’은 현금 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약물예방교육강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적 물적 과정과 더불어 하나의 프로그램이 정착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망라한 표현이다. 이 점에서 현재 일반학교의 약물예방교육의 수준은 정보모델과 교육적 모델의 중간형 또는 혼합형의 양상이라는 데서 학위논문의 획일성 및 수단이 정제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어 사회적 역할모델에 대한 기술이 없었음에 대한 반성 또한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학위논문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예방교육과 관련 중요한 논지가 있다. 학교교육 등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예방교육이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보다 주목받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의존자라는 표현 보다 중독자라는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의존자라 부르지 않고 중독자라고 명명하는 경우는 ‘중독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예방교육의 경우 ‘같은’ 일반인이며, 상대적으로 청소년 즉, 미성년을 계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심적 부담이 적다. 그리고 치료 및 재활에 투자되는 상대적 기회비용에 비추어 예방교육의 경우 실질적 수익효과까지 있다고 여겨지며,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이론상의 논지와는 무관하게 실무에서는 정보모델을 통해 속성으로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며,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무분별한 자격과정의 난립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범죄수사의 한 갈래로써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예방교육단체를 활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전문성에 비해 공신력의 확보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상황배경이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단체등록현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활동으로도 쉽게 추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예방교육의 과도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간과되며, 질적 수준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 범죄수사의 인력 부분에서 대체하는 차원의 범 집행 모델 형태의 예방교육에서, 스스로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모델 수준의 예방교육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초기의 예방교육이었고, 이후 교육적 모델로 진전을 보이지만, 사회적 과다참여로 질적 향상을 위한 숙성 없이 팽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숙성되지 않은 양적 팽창의 근거로는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에만 국한한다는 점이다. 연구의 시작은 있었지만, 이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예방교육의 숙성이 미미하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부연하여, 사회적 역할모델로의 이행은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숙성과 병행되는 측면이 있다. 회복중인 상담가 등이 하나의 예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 3 절 중독연구의 시대별 분석

1. 1990년대 초·중반의 중독연구 : 급성장기

1961년 이후 한국의 마약류 관련 정책은 미국의 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의 한국형 모델이다. 88올림픽(1988) 및 해외여행자유화(1991) 이전의 우리나라 경우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정책은 매우 주효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중독 문제 전반에 대한 인식이자 흐름이었고, 이에 부합하는 연

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건 등에 대한 연구보다 범죄라는 인식을 통한 제제 형태의 시기의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88올림픽 이후 정보의 일반화 등과 맞물려 약물류 범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대 초·중반의 상황인 것이다.

1980년대까지의 흐름에 비추어 확인한 1990년대 초·중반의 연구는, 범죄 및 실태에 대한 체계를 잡는 형태와 수사결과를 통한 경각심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진 학위논문의 주제들과 무리 없이 연결되어 있다.

2. 2000년 전·후의 중독연구 : 확립기

1991년 여행자유화와 1997년 IMF상황을 거치며 급속한 세계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범죄 또한 급속도의 양적 팽창을 보여 왔다. 이는 [표 3-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는 바처럼, 범죄사건의 증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00년 7월의 마약관리법으로 통합규제를 통해 법제를 재정비하였으며, 2002년 창립 10주년(1992. 5.12 창립)을 맞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의 2에 의거 법정단체화되었다.²⁸⁾ 송천 쉼터를 개원(2002. 5.16) 또한 이 시기이다.

[표 3-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이²⁹⁾

품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단속인원(명)	4,445	5,852	7,479	7,066	7,959	7,918	4,727
증 감 륜(%)	20.7	31.7	27.8	-5.5	12.6	-0.5	-40.3

※ 향정사범 : 암페타민 각성제(ATS)로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포함

자료 : 대검찰청(2006), 마약류범죄백서, p76

28) 김명섭(발행인)(2008), 2008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p366

29) 윤홍희, 전개논문, p23

이 시기에는 마약정책상 주요 결정들이 이루어졌고 실천에 이른다. 더불어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관심 또한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논문의 구성으로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 또한 거시적 관점으로 치료공동체 구성의 시작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흐름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내용으로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독자로 보느냐 의존자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만큼, 범죄수사와 관련된 성과물의 경우는 치료 및 재활의 입장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 및 재활의 과정보다 약물예방교육이 활성화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예방교육과 관련 관심도의 증가는 치료 및 재활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마약정책과 범죄수사를 토양으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연유에서 약물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보모델과 교육적 모델의 병행으로 추정한 가정은 합당한 것이었으며, 실제적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다.

3. 2010년까지의 중독연구 : 새로운 성장기

[표 3-3]과 <그림 3-1>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각 영역의 학위논문 비율에 변화가 두드러진다. 수량적인 모색만으로도 마약정책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3편임에 반하여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논문은 9편으로 1991년부터의 총 수량에 비하면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양적 진단 외 논문내용과 쓰임 등에 대한 질적 판단까지 고려할 경우, 마약정책으로 구분한 영역의 학위논문은 행정 및 제도적 사항이 일단락되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준비기라 할 수 있으며, 치료 및 재활의 영역은 사회복지영역을 착실하게 넓히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미 언급했던 2008년 조석연의 ‘해방 후 국민형성 과정에서의 마약문제’의 경우 마약의 역사를 번역이 아닌 국내연구로 조명한 것이며, 2010년

이철희의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연구가 치료공동체를 향해가는 과정에서의 기타 영역과의 연동성을 보인 일례이다. 마약정책과 관련 자체적 이론체계를 만드는 또 한 번의 준비기에 해당하는 지금이며, 치료 및 재활의 영역에서는 꾸준히 준비되어온 결실이 맺어지며 해마다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의 끝에는 치료공동체가 있는 것이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논문의 추이와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 학위논문의 내용에 있어 보다 국제적인 인식이 강화되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방교육에 대한 논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범죄수사의 경쟁력 모색에 대한 주제선정과 내용상에서의 국제적 마약범죄에 대한 기술이 보다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우려의 상황은 예방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꾸준히 누적된 학위논문의 내용 또한 연계성과 통합성에 있어 다른 중독연구들의 진전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그 수량에 비례하는 만큼 예방교육의 전문인을 양성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소모적으로 인식되는 연구와 무분별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마약정책과 범죄수사의 토양에 세워진 계도 형태의 약물 예방교육은 최초 출현 목적에는 부합했을지라도, 치료 및 재활의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쓰임과 참여의 요구와 대응에 있어 정체된 일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 4 장 중독연구에 대한 종합적 조망

제 1 절 중독연구현황의 종합과 모색

1. 중독연구현황으로부터의 소고

중독 문제에서 중독연구로의 흐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독과 관련된 사건이 범죄로 규정되어지고, 범죄적 대응에 대한 누적된 경험의 쌓이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현장의 입장이 강조되었던 연구의 주요내용은 자연스럽게 정책적 접근으로 바뀌는데,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 흐름의 가감이 발생한다. 이후 안착된 실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사회적 소양에 따라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이 시기의 예방교육의 내용은 마약정책 및 범죄수사의 부산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동적정체의 양상을 보인다. 꾸준히 약진하는 치료 및 재활에 대한 관심도는 사회제도의 안정을 설명하는 척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표 4-1] 중독연구의 학위논문을 통한 시기별 주요 성과 분석

구 분	마약정책	범죄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교육	사회적 사안
1990년대 초·중반	범죄·실태에 대한 대안 축적 과정	실무 중심의 사례분석	(준비기)	실태에 대한 초기적 분석	해외여행자유화 (1991)
2000년 전·후	제도화에 기여	수사체계 개선에 대한 제언	치료·재활프 로그램 제안	외적 분위기 조성에 의한 양적 팽창	IMF사태 (1997) 마약류관리법 (2000)
2010년 까지	이론적 체계의 준비	수사·대책의 효율화	치료공동체에 대한 모색	대상군에 대한 자료축적 과정	각종 국제행사
참고사항	학술 경향, 정책에 반영	공권력	정부 및 민간	민 간	(지역화?)

중독연구의 흐름은 [표 4-1] 중독연구의 학위논문을 통한 시기별 주요 성과 분석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치료 및 재활, 예방교육으로 시선의 중심을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범죄수사 영역에 대한 인식이며 공권력, 즉 기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약물중독에 대한 대응은 아직 ‘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정책 반영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주는 마약정책의 영역이며, 이상의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치료 및 재활과 예방교육이 진행 되는 것이다.

2. 외적 자료를 통한 중독연구의 접근

각종 기록물의 확인으로 알 수 있는 외적 요인 중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 정책 등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표 4-2]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마약류 관련 배경이다.

[표 4-2]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마약류 관련 배경

	우리나라	미국의 정책 ³⁰⁾	참고사항
19세기	국지적 약전 통용	미국약전(1920)	국가단위 약전 관리 ³¹⁾
20세기 초	농촌지역 가정의학 (양귀비 재배)	해리슨 법(1914)	1차 세계대전 (1914-18)
1930년대	아편 접촉이 용이한 상황에서의 의약품 대응		2차 세계대전 (1939-45)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특정범죄가중처벌임시법 (1961) 미국식 제도의 유입	사회문제로 인식, 치료·재활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마약류 관련제도의 미국화
1970년대	한국형 처벌위주의 범죄화 정책	마약과의 전쟁 (닉슨 행정부) 통제약품법안 (1970)	마리화나 비범죄화 정책 (1973, 오리건 주)
1980년대		반 마약 남용법 (1986 ; 1988수정)	‘88올림픽

세계사적으로 민족주의적 총력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단위의 약전 관리가 가속화함에 반하여 국내 사정은 반대 양상이었고, 서구적 의약품 관리가 표준이 된 지금 전통적 의약요소의 많은 부분이 민간요법 정도의 이름으로만 명맥이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²⁾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의약요소의 남용이며, 이 부분을 통한 중독의 문제가 우리의 1960년대 농촌 사회가 마약류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표 4-2]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마약류 관련 배경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구한말 시점의 의약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부터 광복과 6.25를 거치며 1960년대에 이르러 처음 접하게 된 마약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미국식 통제 법안이었으며, 1980년대 국제적인 행사 이전까지의 폐쇄적 상황과 맞물려 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현재까지 마약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뿌리라는 점이다.

한 세대의 기간 동안 쌓인 일반의 중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뿌리는 중독 문제와 관련 ‘의존’이라는 용어에 비해 ‘중독’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보편·일반적이며, 예방교육의 성격을 계도차원의 정보모델 및 교육적 모델로 이끌어 온 실질적 원인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도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하고 있다.

제 2 절 중독연구의 흐름에 대한 소고

1. 우리나라 중독 문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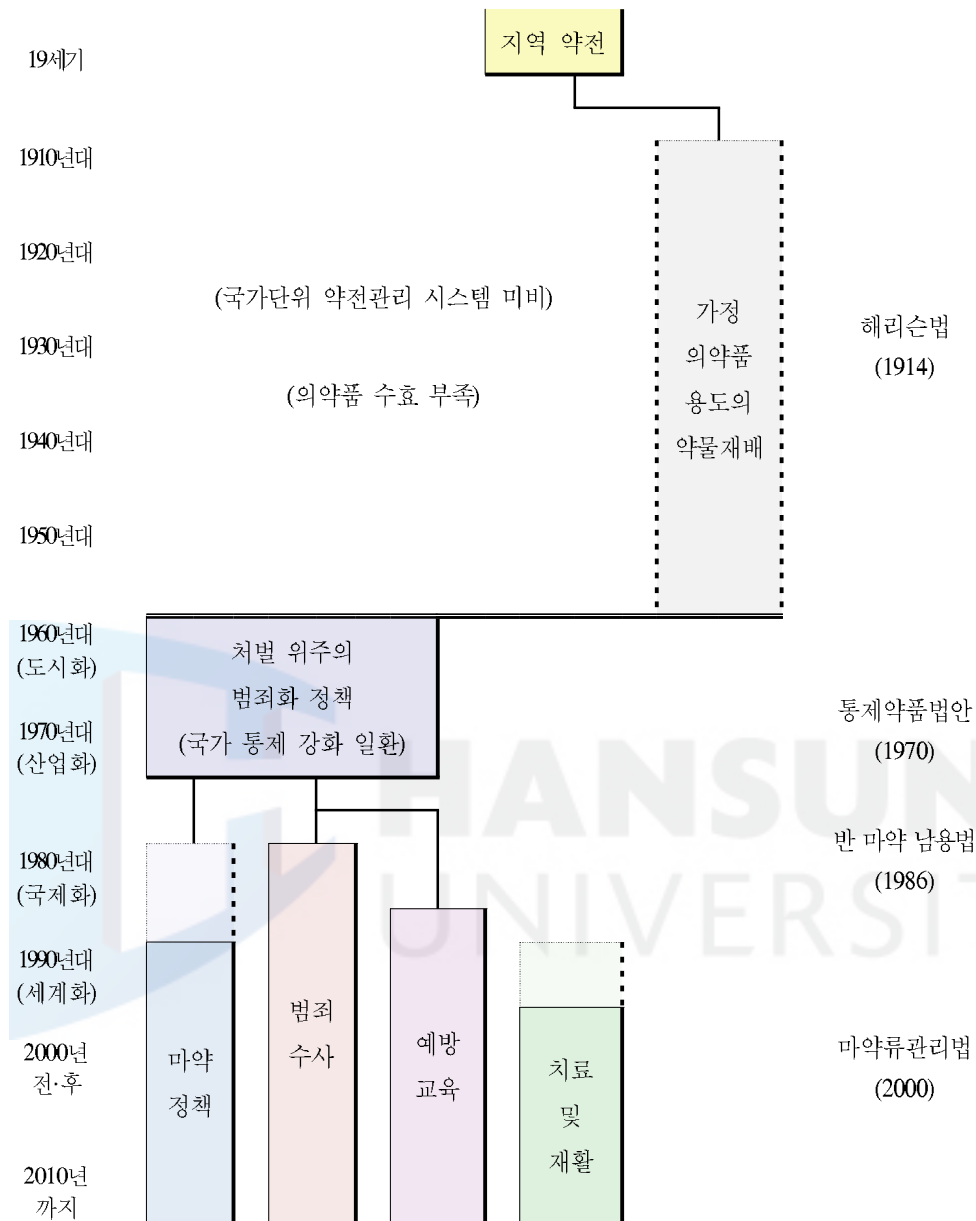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그림 4-1>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으로 요약된다.

30) 조성권, 전계강의록, 2009

31) 이동석·김신근, 전계서, 1997, p187

32) 조석연(2008), 해방 후 국민형성 과정에서의 마약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그림 4-1>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



1980년대까지 약물 및 마약 중독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다는 자체도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운용하는 현대국가 가운데 유일한 마약청정국이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초기 중독연구의

체계성은 비효율일 수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한 세대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산업화의 과정으로 농촌사회의 젊은 인력이 도시로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세대 간 단절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회현상이다. 농촌사회에서 의약품 대용 형태의 약물을 재배했던 상황에서 사는 곳을 바꾼 새로운 세대가, 그 한 세대의 삶의 기간 동안 처벌 위주의 통제적인 약물 및 마약에 관한 정책을 따른 결과,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현대 자본주의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한 마약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특수가 있었다. 산업화의 시기에는 마약류관련 사건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으며, 적은 수로 발생하는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 보다 외국의 일부 사례에 대한 유사적용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역시 1980년대를 지나며 국제화 및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역동적인 중독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화라는 주류에 맞게 적응해야만 했으며, 2000년을 전·후한 나쁜의 적응 이후 새로운 모색을 하는 시점이 오늘날인 것이다.

2. 중독연구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 중독 문제의 흐름에 이어 각 세부영역에 대해 간략히 추정한 예측도가 <그림 4-2> 중독연구에 대한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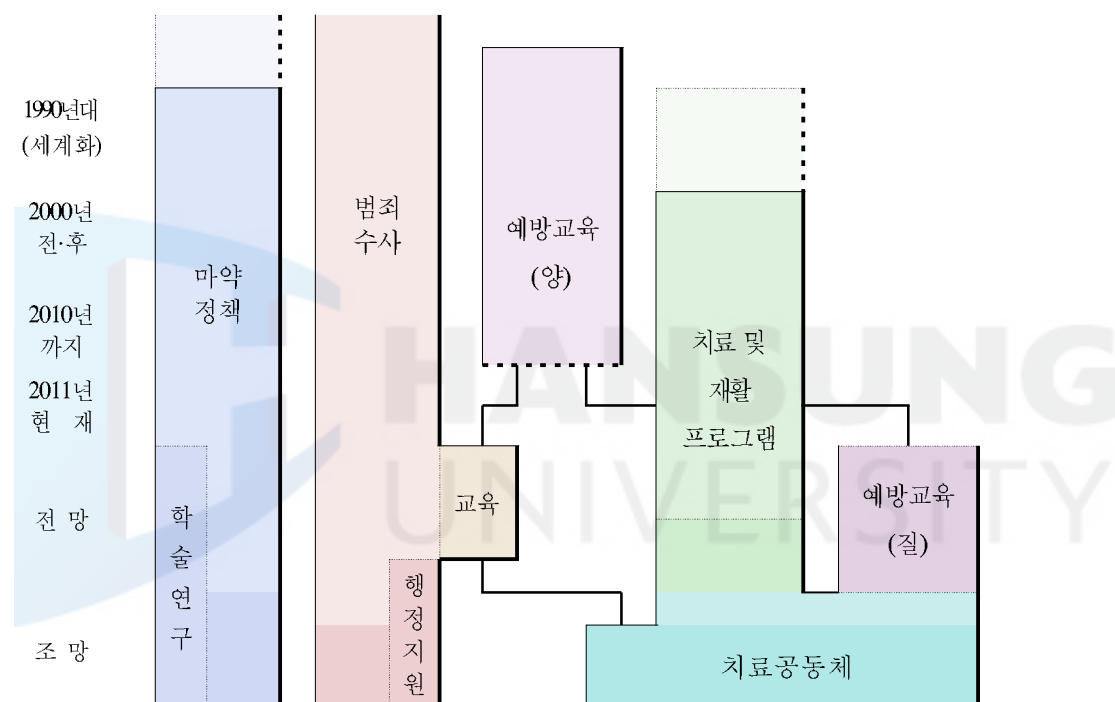
먼저 마약정책 연구의 흐름은 법제의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되기 전까지는 대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정책적 비전보다는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지난 기간 동안 부족했던 고급 전문 인력의 확보가 아울러 진행 된다면, 국내에서 마약관련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가 외국에 비해 대단히 부진한 것에 대한³³⁾ 대응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방교육의 연구는 양적 팽창이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지만, 그 지속성 및 연계성에서 접근의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부족했다고 볼

33) 조성권(2006), 국내 마약정책의 이슈와 대안, 마약연구 3권, p7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공공의 상황 및 위법상황 이후의 계도교육 등의 요소들은 수사연구 영역과 소통하고, 순수 예방교육의 경우는 치료 및 재활의 상황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때 중독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 가운데 실무와는 가장 떨어져 있는 집단군이 될 수도 있는 약점을 재활자 및 치료 프로그램 종사자의 활용한 예방교육 마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적이며 방법적 요인을 심분 활용하여 양적 팽창을 질적 숙성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림 4-2> 중독연구에 대한 전망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연구는 현재 가장 긍정적으로 보인다. 미국사회 등에서 한번 이상 검증된 사례들의 도입으로 최초의 과정에서 일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의 만들어 가며 실천해야 하는 부담은 적기 때문에 안정된 성장이 기대된다. 단지 이러한 치료 및 재활의 경우 현실적 요인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가 종종 우려되는 바, 이는 아직까지 한국사회

에서 ‘의존자’ 이전에 ‘중독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마리화나 중독자의 경우 외국의 합법지역에서는 치료의 대상이겠지만, 국내로 입국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한 논쟁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 상황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위논문 등의 연구로 추정했던 최근의 치료 및 재활 중심의 활동들이 마약정책에 관한 영역까지 유관·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양상이며, 앞으로도 기타 영역과의 조율 등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주법 이후 법안 변화와 치료 프로그램 및 치료공동체가 오늘 의 모습을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은 최소 두 세대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방교육과 관련 재차 확인해 둘 것은 기반조성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회복중인 상담가’³⁴⁾의 활용도는 안착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까지의 미국사회는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치료공동체의 안착 이후 다시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치적 의미가 아닌 통과 과정으로서의 치료 및 재활과정이 선행 자리매김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에서, 재활자와 치료 종사자의 현실 참여에는 일부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중독연구의 흐름도에서 표현하는 바처럼 불법 약물에 대한 계도교육은 범죄수사 연구의 영역으로 잠시 이관하고, 일반 매약, 처방약, 비인식약에 대한 오·남용 및 예방교육에 주력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후 치료공동체의 숙성에 맞추어 예방교육과의 통합과정에 맞추어 재활자 및 치료 종사자에 의한 예방교육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행이라 여겨지며, 법적인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범죄수사의 영역 가운데 행정지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제 3 절 중독연구에 대한 제언

34) 김선민(2007), 회복중인 상담가의 자리매김 역사, 마약연구 4권, p2

회복에 대한 대부분의 논쟁은 회복된(-ed)과 회복중(-ing)으로 볼 것이냐에 있는데, 중독을 하나의 역동적 과제로 보는 활동성과 주의성을 주지하는 입장에서 회복중인 상담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 중독 전반에 대한 합의

중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 성과는 많지만, 어느 한 영역의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전체적인 조망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경향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고 중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했으며 중독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시대별로 초점을 받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독에 대한 관의 입장과 민간의 상황이 존재하며, 전자의 경우 마약정책과 범죄수사가 주요 구성이 되겠으며 후자의 경우는 치료 및 재활과 예방교육 형태의 대략적인 가름이 가능할 것이다. 19세기 이후 세계적 상황에 맞물려 국내의 불안정한 약전체제하의 당시 농촌사회에서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는 범죄라 인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면에 대해 확대해석을 한다면, 국제적 마약 재배지역의 초기 상황과도 유사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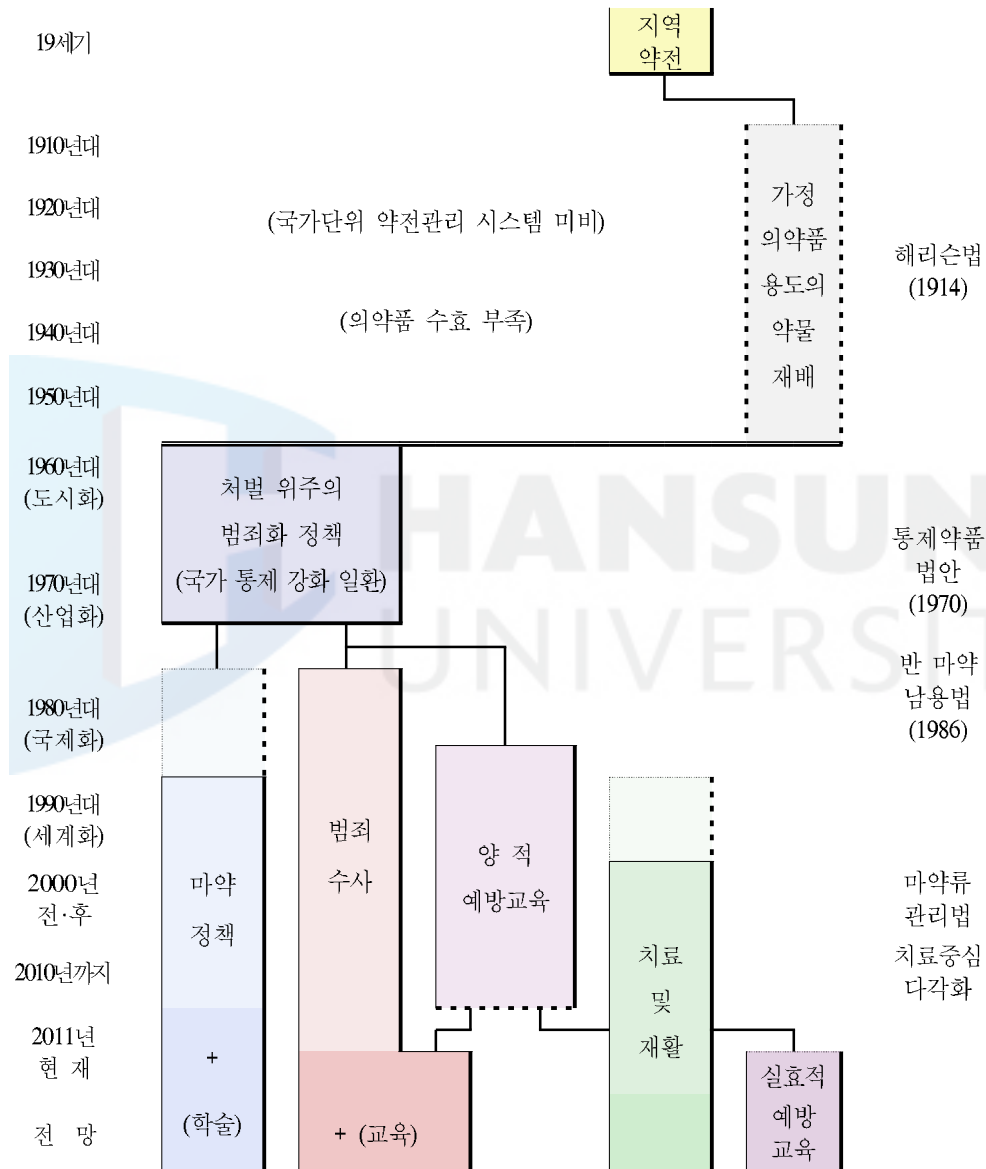
한국사회가 광복 이후 6.25를 거치며 황폐화된 국토 위에 다시 사회체계를 세워가는 시점에 미국적 제도의 유입으로 처벌위주의 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이후 마약청정국가로 존재했던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마약정책에 대한 기조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중독자에 대한 인식은 의존자라는 인식에 다소 장애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꾸준히 준비된 치료 및 재활에 대한 모색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압축성장과 맞물려 중독 연구 내 중심은 범죄수사의 연구에서 마약정책, 치료 및 재활의 단계를 급속히 밟아 왔으며, 예방교육의 경우도 초기 양적인 모델의 경험을 넘어 질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종합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 주도 성향의 통제적 상황에서 민간의 역량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치료 및 재활 및 예방교육 중심의 성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처럼 각 영역별 연구 주제에 있어 일부분 변화가 예측된다. 현 사회상황에서 마약정책

및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변화가 오기까지는 내실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질 시기이며, 치료 및 재활의 영역은 양적 팽창의 시점이 올 것이다. 이때 실효적 예방교육도 아울러 정립될 것이라는 것이 그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림 4-3> 중독 전반에 대한 흐름과 전망



2. 중독연구의 실천적 관점에 대한 제언

앞서의 조망에 비추어 실천적 제언 또한 세 가지로 가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망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모색해 보도록 한다.

먼저, 치료 및 재활과 예방교육 체계성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의 증대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변증법적 논리는 현실에서 흘릴 땀에 대한 반영이 간과될 경우가 많다. 무분별할 정도의 급속한 확산은 광의적 사회 참여라 볼 수 있겠지만, 근시안적일 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활 간 무가치에 가까운 자격증과정의 남발이 그 일례가 될 것이다. 자기계발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실효적이지 못한 자격과정 등을 통해 채웠다면, 잃어버린 기회비용에 대한 후회 및 실천적 사회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 왔을 때,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입장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 및 재활과 예방교육의 확산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으로써 수준유지 형태의 국가자격증 설정이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한다. 제도의 강화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가름하기도 하지만, 신뢰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하여 치료·재활프로그램의 실용적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행정적 조치가 되지 않게 하기위한 실천의 입장에서 과도한 체계성을 갖는 매뉴얼 보다는 도제형태의 실무 중심 매뉴얼이 절실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과정의 정립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 연구에서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포괄적 지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연구와는 별도의 종합적 분석의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수조사를 대체하여 표본조사와 유의추출에 의거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생활에서의 자기표현이 개인의 어문학적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고 싶고, 이런 종합적 내용은 연구의 양·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관점이다. 예방교육과 관련한 논지의 경우 설문 형태의 통계적 조사를 기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연계성에 있어서 소모적이었다고 논한 바 있다. 범죄수사연구에서의 중복 요소들은 범으로 제한된 전문영역에서라는 한계성 때문이겠지만, 실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조는 수단의 진전에 대한 부채를 느끼게 한다. 선행 연구자에 대한 통계적 추출이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하나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학기 과제화 하는 것도 수준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예방교육에 대한 소건의 핵심은 양적 연구에서 질적인 연구로의 전환이다. 그 과정상 범죄화 정책에 따른 계도교육의 양상에서 보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약물에 대한 계도교육 형태의 정보모델과 같은 예방교육은 범죄수사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치료 및 재활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형태의 사회적 역할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독연구의 흐름에 대해 종합적 모색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시대적 분석을 통해 중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독연구의 사회적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중독의 기본적인 패턴은 비인식약을 통해 불법약물에 노출되고 점차 의존되어가는 과정이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담당에 따라 마약정책, 범죄수사, 치료 및 재활, 예방교육으로 4분하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 국가적 의약전 정립이 늦어진 이후 농촌 사회에서 아편을 비인식약으로 사용한 무지가 있었으며, 1960년대 이후 미국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도시화 및 산업화를 거치며 마약류청정지역이 되는 극단적인 변화가 본격적인 중독연구 이전의 배경이다. 근본적으로 체계성을 갖춘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국제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보다 가속화 된 것이다. 중독연구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론이 되겠지만, 연구의 전문성과 양적 증가 모두 아직은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으며, 특히 예방교육과 관련 연구는 상당 부분 소모적이었다.

중독문제와 관련 1960년대 이후 처벌 위주의 범죄화 정책이 모든 중독 문제의 기초임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가 200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1990년대 초·중반의 급성장기, 2000년 전·후의 확립기, 2010년까지의 새로운 성장기라는 중독연구의 시대별 구분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첨언하여 이전 1980년대는 준비기로 볼 수 있겠으며, 2011년 이후가 되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치료공동체로 대변되는 중독연구의 혁신기의 출현을 조망하였다.

중독연구에 대한 가까운 전망으로 치료재활의 영역이 차분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각 연구의 영역이 서로 조율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실효적 예

방교육이 정립될 것이라는 점 등 이상 세 가지를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소고와 제언으로써 수준유지 형태의 국가공인의 자격증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격증의 선정과정에서 개별적 논점을 해소하며 추진하는 점진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중독연구의 각 세분된 영역 사이의 교류는 보다 긴밀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부 무분별한 약물예방교육 또한 수준유지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통해 질적 향상으로의 유연한 교정이 기대되며, 이는 실효적 예방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방안이다.

중독연구는 사회 변화와 더불어 동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지나는 만큼 각고의 보다 나은 경주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서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였음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 강규복. 2008.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찰수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 행정대학원. 전북 익산.
- 강두원. 1990. 高校生들의 體育活動과 藥物 濫用 實態 분석. 석사학위논문. 東亞大 教育大學院. 부산.
- 고 강. 2006. 중국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서울
- 고성균. 1996. 韓國의 麻藥類 統制政策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漢城大 行政大學院. 서울
- 공재만. 2005.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조사와 예방 방안 : 구로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서울.
- 구자관. 2009.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석사학위논문. 선문대 행정대학원. 충남 아산
- 김기봉. 2000.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마약사용극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교육대학원. 대구.
- 김달남. 1997. 약물범죄수익박탈제도에 대한 소고. 석사학위논문. 全北大 大學院. 전북 전주
- 김미경. 2007.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전북 완주.
- 김석환. 2005. 마약류범죄 통제체제 및 수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경영대학원. 경기 용인.
- 김소라. 2005. 청소년 약물 남용 진화 과정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김수진. 2007. 약물남용과정 유형별 성격 기질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김우준. 2008. 마약류 범죄자 보호관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서울.
- 김은영. 1998.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억제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中央大 行政大學院. 서울.
- 김은혜. 1994.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檀國大 行政大學院. 서울.
- 김준래. 2003. 국제 스포츠 약물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노준혁. 2000. 중학생의 마약류 남용에 대한 의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 행정대학원. 서울.
- 류인창. 1991. 麻藥類事犯의 實態와 對策 : 메스암페타민事犯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淸州大 大學院. 서울.
- 문형란.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서울.
- 민성기. 200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서울.
- 박규석. 2009. 약물의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인천 및 부산지역 자조모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행정대학원. 인천.
- 박옥주. 2003. 마약 의존자의 마약에 대한 접근 및 의존 과정에 관한 연구 : 필로폰 의존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서울.
- 박은호. 2007. 마약류 투약 범죄자 치료·재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극기체험(챌린지 로프코스)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박종문. 1992. 靑少年 藥物 誤·濫用 實態와 豫防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延世大 行政大學院. 서울.
- 박지원. 2004.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서울.

- 박해노. 2002. 한국마약류남용 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충남 금산.
- 배상민. 2000.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사용과 예방의식 지도 방안 : 청주시내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원대 교육대학원. 충북 청주.
- 배혜정. 1999.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 석사학위논문. 中央大醫藥食品大學院. 서울.
- 배홍철. 2007.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개입유형의 실태와 개입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서울.
- 백청수. 1993. 麻藥類濫用의 現況과 統制對策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東國大 行政大學院. 서울.
- 서덕화. 2007.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 대학원. 전북 익산.
- 서성목. 200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남대 행정대학원. 경남 창원.
- 송방식. 2002. 마약류 수형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행정대학원. 경기 수원.
- 송시열. 2000. 청소년 약물남용과 예방을 위한 기독교 영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 신학대학원. 광주.
- 송인근. 2008. 집단 심리상담치료에 의한 마약사범의 실태분석 및 수형 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대전.
- 송일재. 2004. 한국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 행정대학원. 인천.
- 송충근. 2005. 향정신성 의약품의 범죄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신의기. 1993. 國際法上 麻藥類規制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慶熙大 大學院. 서울.
- 심 순. 1999. 麻藥類犯罪의 搜查體系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東

- 國大 大學院. 서울.
- 안미하. 2009. 미국 청소년 약물예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행정대학원. 서울.
- 안영철.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서울.
- 오영균. 2002. 청소년 마약남용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서울.
- 오원자. 2005. 인천광역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 인천.
- 오정희. 1992. 陸軍의 麻藥類濫用 實態와 對策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東國大 行政大學院. 서울.
- 원사덕. 2003.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유정규. 2004.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유현숙. 2002.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경기 용인.
- 윤옥한. 2009.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경기 군포.
- 윤웅장. 2002. 보호관찰처분의 유형에 따른 약물재남용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수원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경기 용인.
- 윤재선. 2004.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윤희희.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이 삼. 1999. 마약류범죄수익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成均館大 大學院.

- 서울.
- 이강호. 200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행정대학원. 대구.
- 이병화. 1993. 麻藥類事犯의 實態와 對策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漢陽大 行政大學院. 서울.
- 이영재. 1994. 약물범죄수익물수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延世大 大學院. 서울.
- 이은모. 1992. 藥物犯罪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延世大 大學院. 서울.
- 이재규. 2004. 환각성 약물의 마약류 적용에 관한 연구 : Dextromethrophan 약물 규제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이종세. 2002. 마약중독과 치료 및 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서울.
- 이진우. 2004. 마약류 투약 범죄자 교정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이철희. 2006. 약물경험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적 처우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부산.
- 이철희. 2010.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방법론의 활용. 박사학위논문. 동의대 대학원. 부산.
- 이현경. 1995. 한국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東國大 行政大學院. 서울.
- 이형미. 1999. 청각장애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 교육대학원. 경기 수원.
- 임영삼. 2004. 마약류 투약범죄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임정일. 2003. 경찰의 마약류범죄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 경영대학원. 경기 용인.

- 임주형. 2001. 약물범죄 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 대학원. 광주
- 장인환. 2005. 마약류사범의 효율적인 교정처우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 행정대학원. 경기 수원.
- 장정배. 1994.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高麗大 政策科學大學院. 서울.
- 전경수. 1992. 麻藥類 事犯 搜查上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에 관한 연구 : 히로뽕 事犯 搜查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漢城大 行政大學院. 서울.
- 전영화. 1998. 麻藥類犯罪의 實態分析과 規制政策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東國大 大學院. 서울.
- 정두형. 2007. 약물운전의 처벌과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정선태. 1991. 麻藥類 事犯의 實態와 對策. 석사학위논문. 서울大 大學院. 서울.
- 정용범. 2006. 대마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정재웅. 1984. 藥物犯罪의 比較研究: 保安處分에 의한 矯正·治療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大 大學院. 서울.
- 정태진. 2002.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사연구 : 일부 대학생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대전.
- 조석연. 2008. 해방 후 국민형성 과정에서의 마약문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서울.
- 조형근. 2006. 마약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주일경. 2004. 남성 히로뽕 사용자의 과대성락과 그 인식에 관한 연구 :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찾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서울.
- 지상연. 1999.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수용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

- 사학위논문. 群山大 經營行政大學院. 전북 군산.
- 지영환. 2004. 마약류 중독에 의한 정신범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진민범. 1994. 국제 마약류 밀거래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慶熙大 行政大學院. 서울.
- 천홍열. 2001. 마약류수형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대학원. 서울.
- 최광명. 1991. 麻藥類犯罪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漢陽大 行政大學院. 서울.
- 최규남. 2003. 9.11 테러 이후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국제마약범죄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 국제대학원. 서울.
- 최덕수. 2004.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최명찬. 2006. 약물남용관련법의 내용과 치료재활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문화대학원대. 충남 청양
- 최병원. 1999.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中央大 醫藥食品大學院. 서울.
- 최진호. 2000. 교정시설내 마약류 사범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 정책대학원. 대구.
- 한인복. 1999. 한국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 행정대학원. 경기 용인.
- 한진태. 1998. 靑少年 藥物濫用 實態分析과 對策에 關한 研究 : 경찰의統制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東國大 行政大學院. 서울.
- 허성수. 2005. 치료공동체를 통한 약물남용자의 재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서울.
- 황해원. 1997.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 :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淸州大 大學院. 충북 청주.

2. 참조자료

- 강은영. 20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 경찰청. 2008. 「2007년 마약류범죄 수사사례」. 경찰청
- 국가정보원. 2006. 「마약류 용어해설」. 국가정보원
- 남궁기. 2001. 「알코올 의존 당신도 치료할 수 있다」. 청년의사
- 데이비드 던컨·로버트 골드. 1991. 「약과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1988.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특장판) 6권.
동아출판사
- 박계숙. 2002. 「인간과 건강」. 길눈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마약류과학정보지(vol.5).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마약류과학정보지(vol.6). 식품의약품안전청
- 유태중. 1998. 「술, 악마의 유혹인가 성자의 눈물인가」. 아카데미북
- 윤홍희. 2009. 「신마약류 범죄 수사론(실무 중심)」. 조은
- _____. 2008. 마약류 범죄수사 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한성대 대학원. 서울.
- 이동석·김신근. 1997. 「약의 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문우. 1994. 「마약 히로뽕 이런 것이다」. 유림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원. 2003. 「약물상담가 교재 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원
- _____. 2003. 「약물상담가 교재 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원
- _____. 2003. 「약물상담가 교재 3」.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원
- _____. 2003. 「약물상담가 교재 5」.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원
- 조병상. 2008. 국제마약범죄와 합정수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 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서울.
- 주왕기. 1989. 「약물남용」. 신일상사
- 주일경. 2009. 「약물재활복지 이론과 실제」. 정법
- 체육부. 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 트리샤 그린할프(신승수 옮김). 2001. 「의학논문 제대로 읽기」. 몸과
마음
- 편집부. 1982. 세계석학논문집 5권. 대우출판사
- 한국국제마약학회. 2004. 「마약연구 창간호」. 한국국제마약학회
_____. 2005. 「마약연구 제2권」. 한국국제마약학회
_____. 2006. 「마약연구 제3권」. 한국국제마약학회
_____. 2007. 「마약연구 제4권」. 한국국제마약학회
_____. 2008. 「마약연구 제5권」. 한국국제마약학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8. 「2008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 David J. Powell · Archie Brodsky(한국중독전문가협회 역). 2009. 「중
독영역에서의 슈퍼비전」. 학지사
- GARY L. FISHER, TOMAS C. HARRISON(장승욱 외 4인 역). 2006.
「물질남용의 이론과 실제」.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William Glasser, MD(김인자 옮김). 1996.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
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3. 인터넷 자료 홈페이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http://www.spo.go.kr/>)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ABSTRACT

A Critical Evaluation on Addiction Studies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Sohn, Ki-Ock

Major in Addiction Studies

Dept. of Narcotic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valuate addiction(drug-dependency) studies in periodical terms to examine social perception towards addiction and the influences exerted by addiction studies upon society.

The research for this thesis, which has been initiated by the idea that reviewing the past is equally important as launching new researches or projects, analyzed drug-related theses published in South Korea using sampling survey and purposive sampling techniques and examined them in comparison with social trends.

Addiction studies in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early 1990s to the mid-1990s,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and the mid-2000s to 2010. Each of the periods can be perceived as adaptation to addiction problems,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and systems, and searching for new alternatives. The transition from unregulated use of unrecognized drugs in mainly rural area to the establishment of punishment-oriented criminalization policy has been

described.

The future prospect of addiction studies points to a possible expansion of non-governmental resources i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qualitative changes in relevant research areas, and necessities of preventive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ospects, the establishment of a qualitative national licensing system has been suggested.

This thesis is a bibliographical study, a relatively neglected topic in addiction studies.

